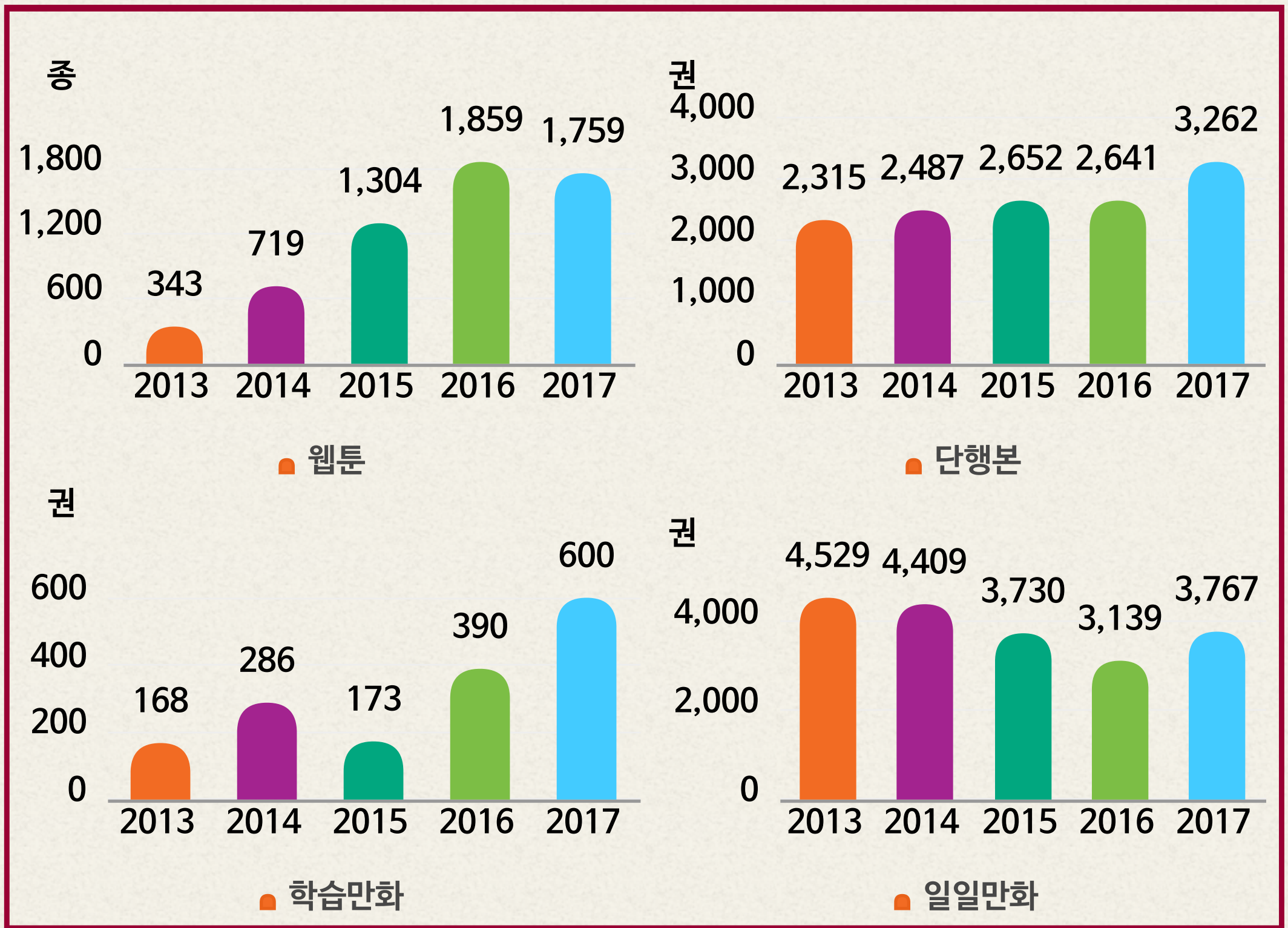


# 2017

## 만화 통계

## 카드뉴스

# 연도별 만화제작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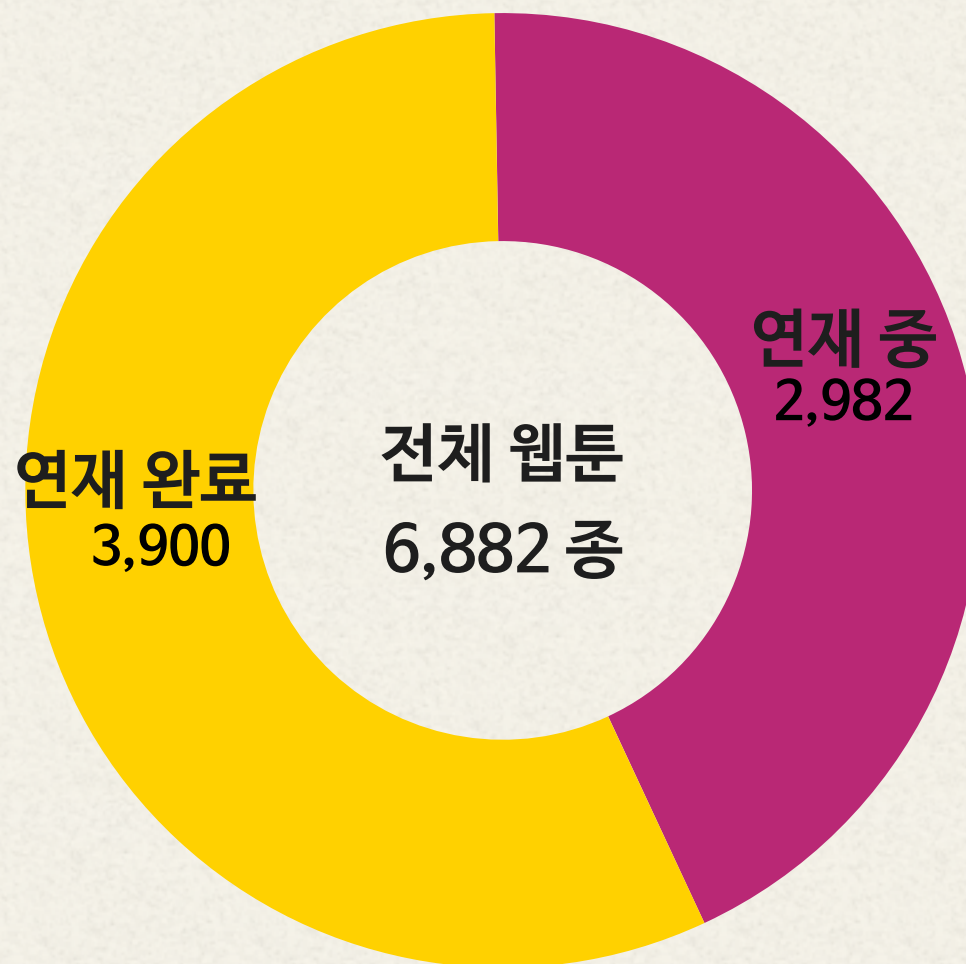


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만화제작은 웹툰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. 단 일일만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.

만화 : 웹툰, 단행본, 일일 만화, 학습 만화

기준 : 2013년~ 2017년 12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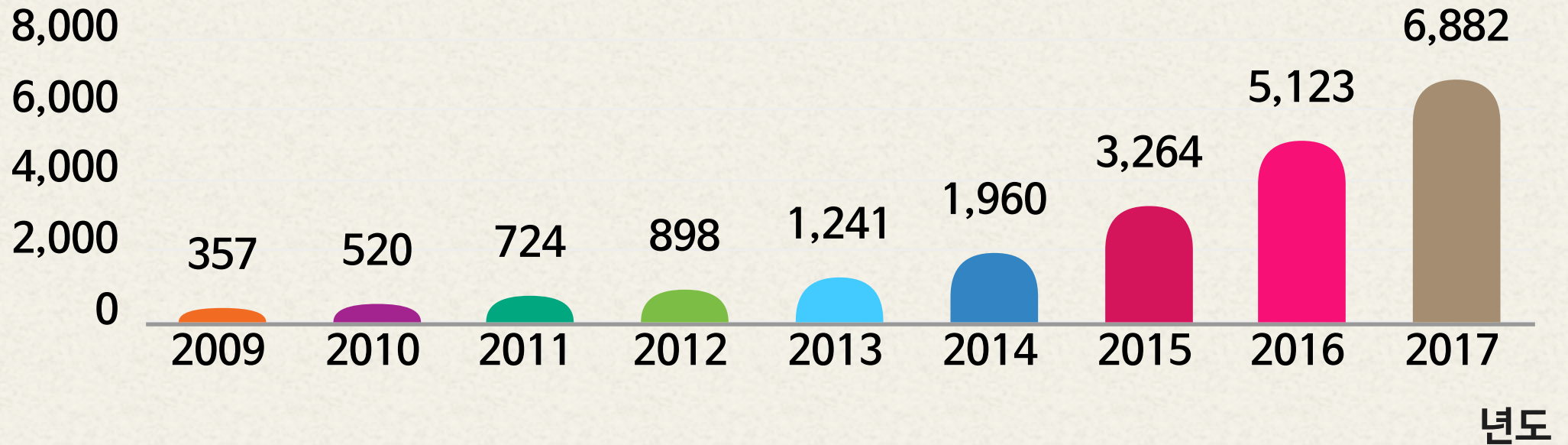
# 전체 웹툰/연재 중 종수



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누적 웹툰 수는 6,882종이다.  
2017년 중 연재된 웹툰은 총 1,759종 이다.

# 연별 웹툰 누적 종 수

누적 작품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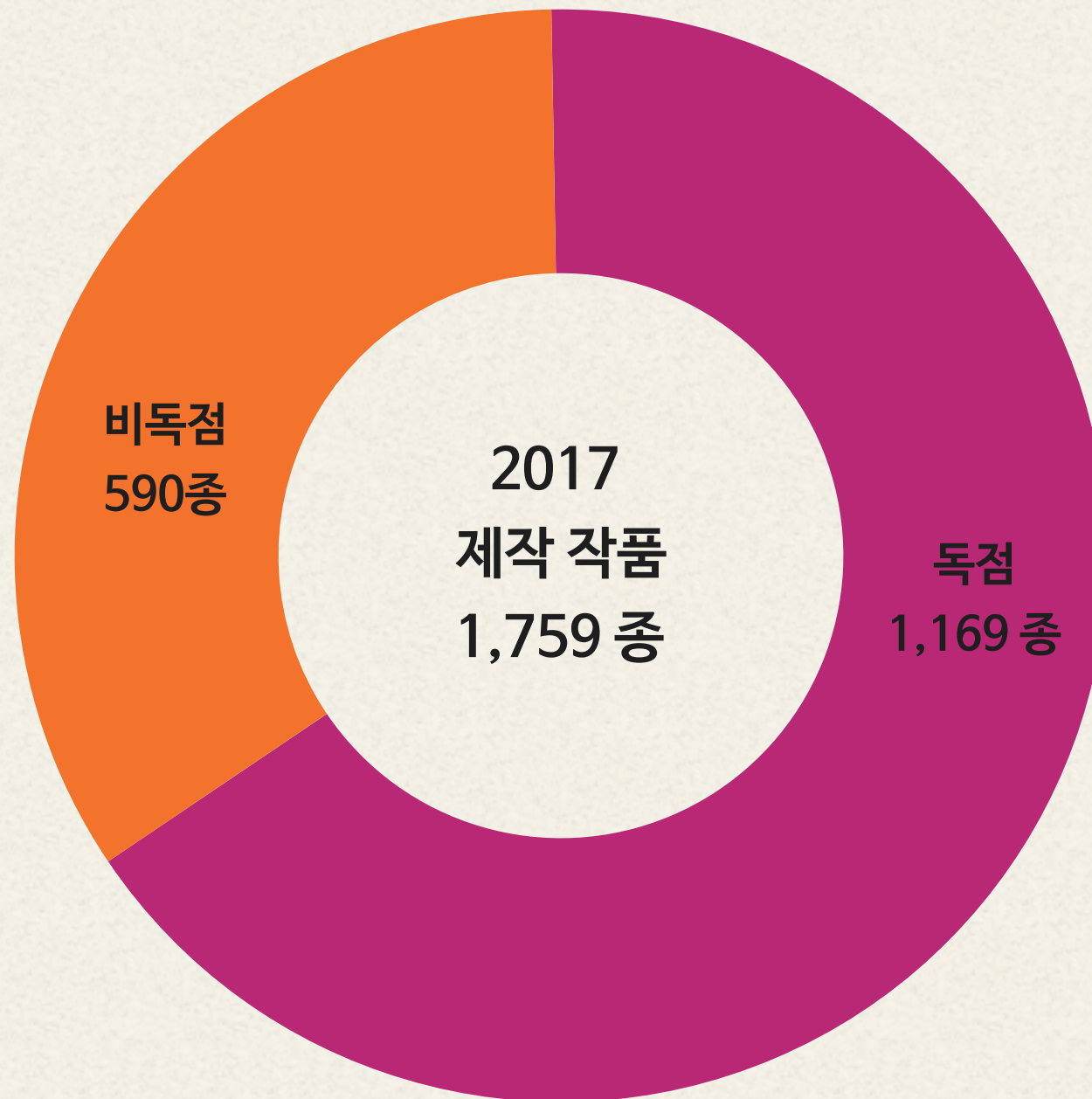


전년대비 증가 작품 수



2012년까지 연간 웹툰 제작은 200편을 넘지 않았다. 하지만 2013년 웹툰 전문 플랫폼의 등장으로 연간 제작 편수는 2016년 최대 1,859편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은 다소 감소한 1,759편을 제작하였다.

# 2017 제작 웹툰 종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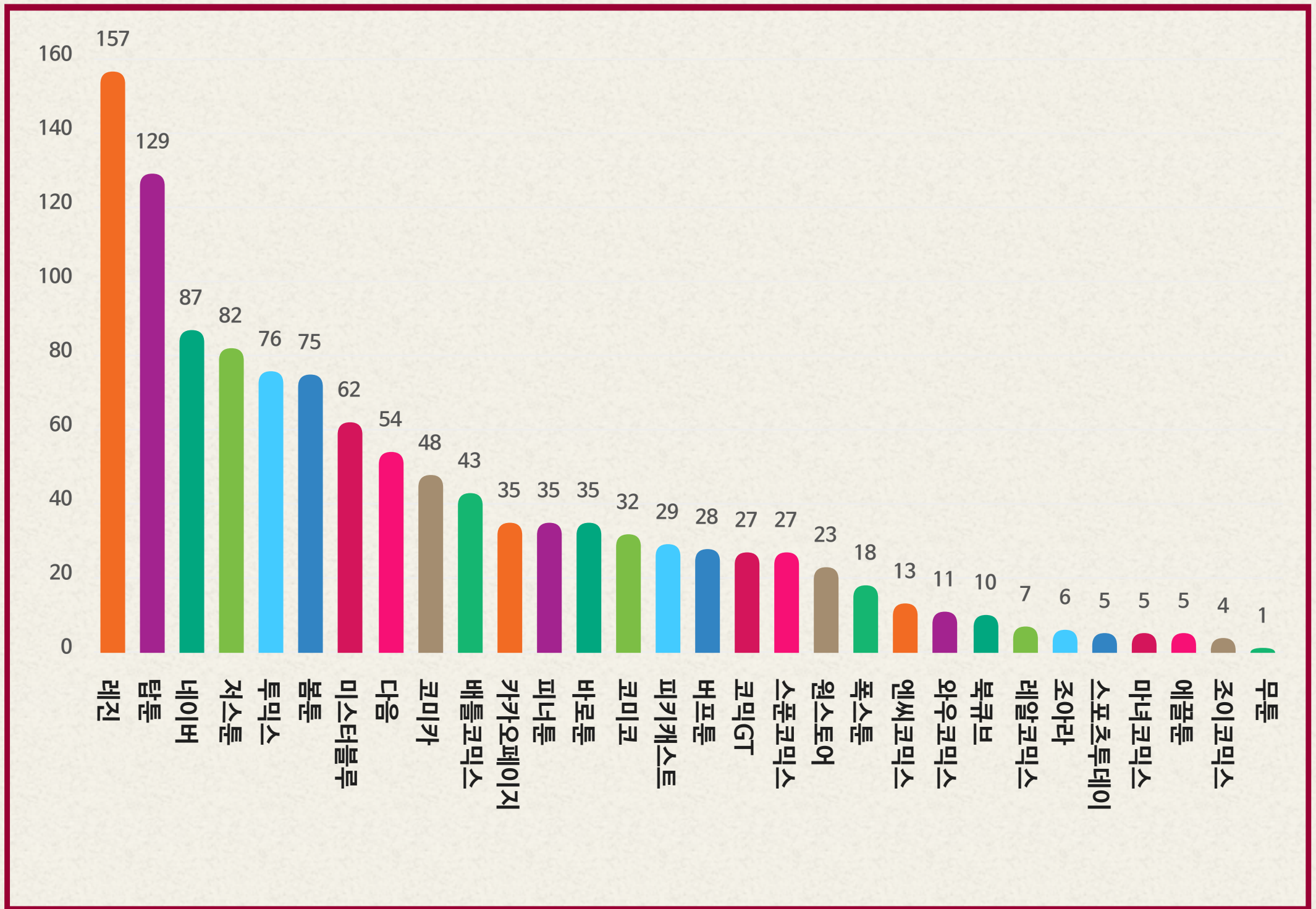
2017년에는 총 1,759편의 웹툰이 제작/공개되었다.  
그 중 독점 웹툰은 1,169종, 비독점 웹툰은 590종으로 집계되었다.

독점 : 한 플랫폼에서만 연재한 작품

비독점 : 여러 플랫폼에서 연재 혹은 공개 된 작품

기준 : 2017년

# 2017 플랫폼 별 웹툰 제작 종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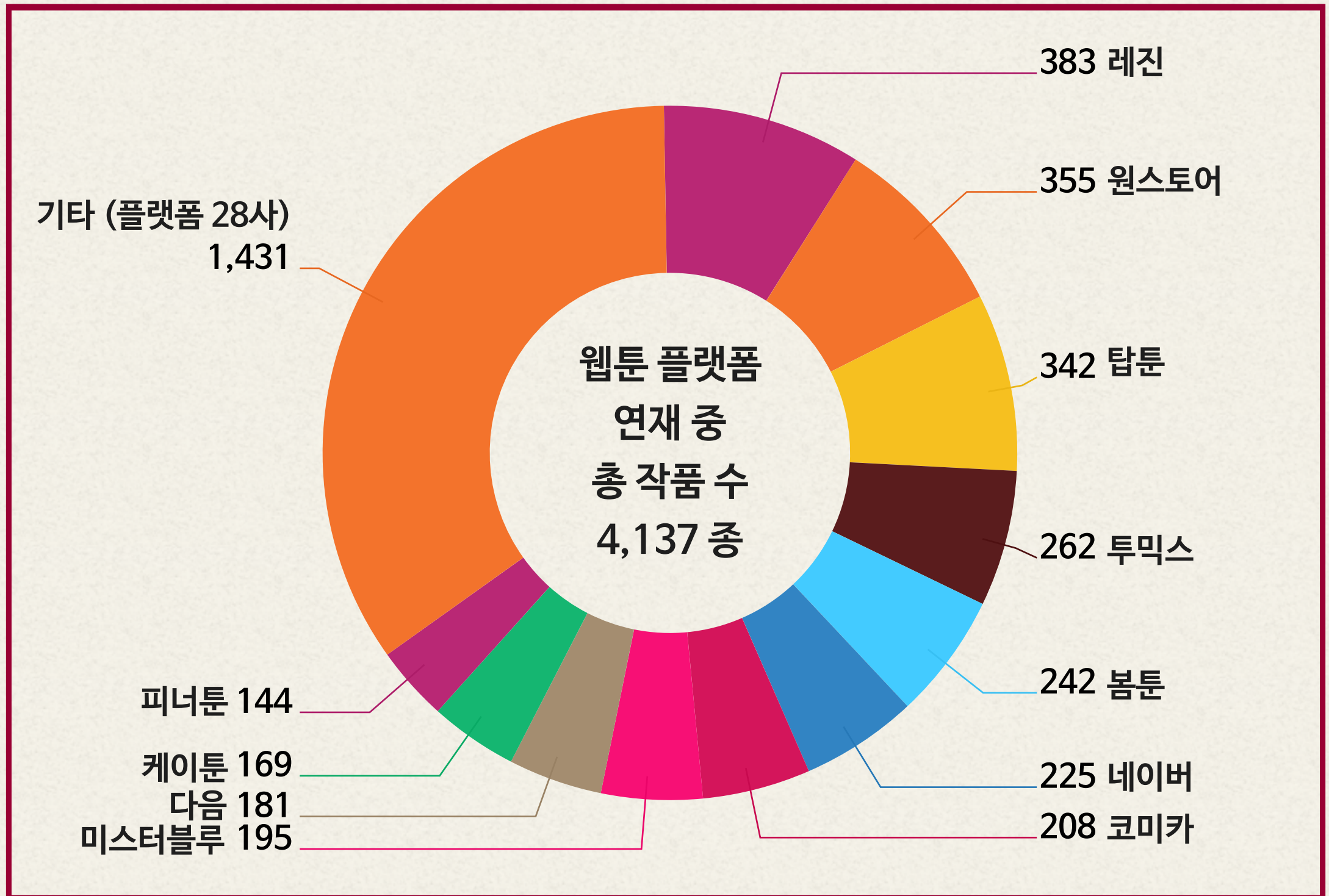
1위 레진 157종  
2위 탑툰 129종  
3위 네이버 87종

4위 저스툰 82종  
5위 투믹스 76종  
6위 봄툰 75종

7위 미스터블루 62종  
8위 다음 54종  
9위 코미카 48종

10위 배틀코믹스 43종


# 웹툰 플랫폼별 연재중 작품 수



-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위 레진 383종   | 4위 투믹스 262종 | 7위 코미카 208종   | 10위 케이툰 169종 |
| 2위 원스토어 355종 | 5위 봄툰 242종  | 8위 미스터블루 195종 |              |
| 3위 탑툰 342종   | 6위 네이버 225종 | 9위 다음 181종    |              |

기준 : 2017년 연제작 기준 / 비독점 연재 포함

# 2017 연재 중 작가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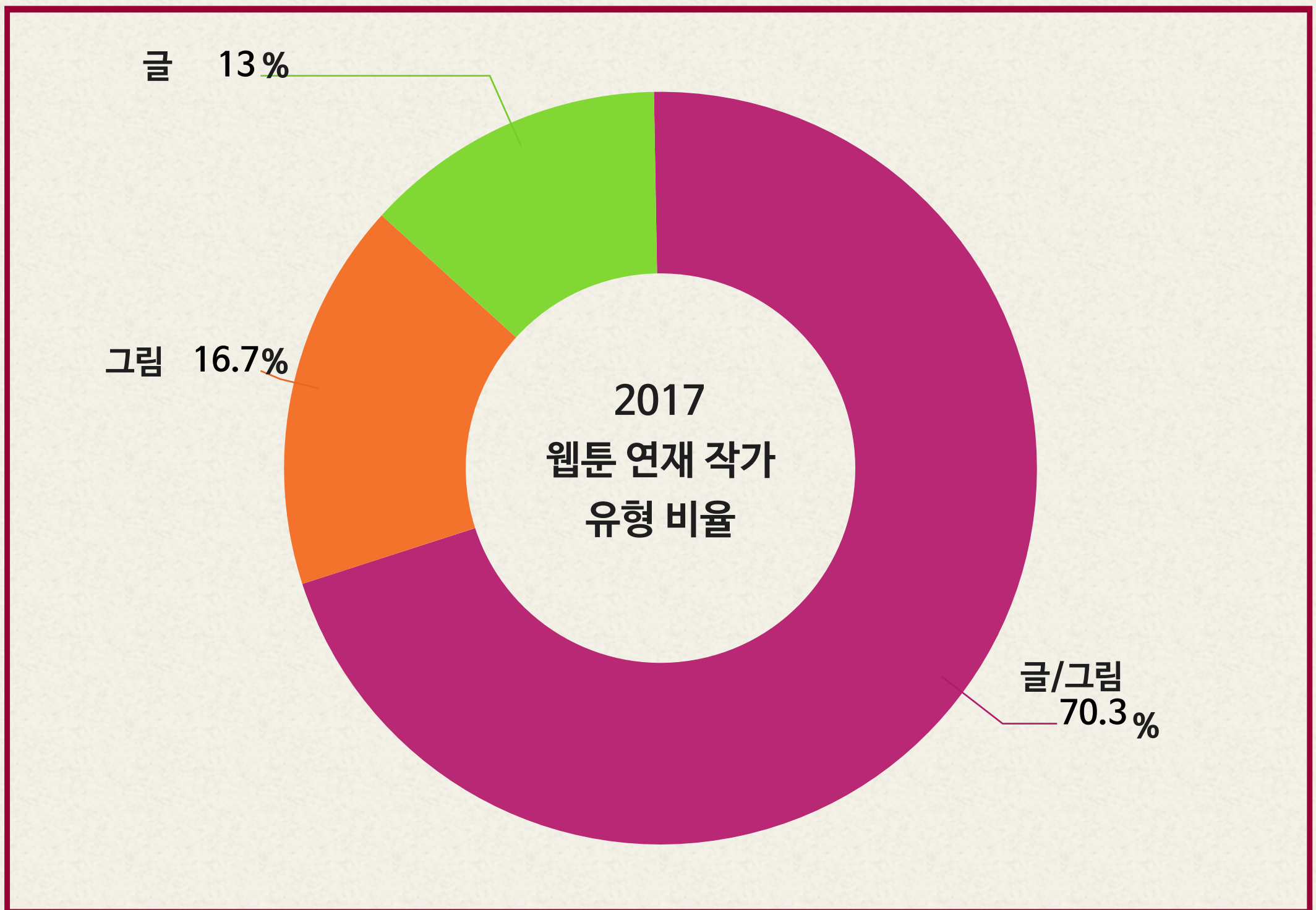


2017  
현재 연재 중  
웹툰작가  
2,950명

2017년 중 연재한 웹툰 작가는 총 2,950명으로 약 3천명에 가까운 수의 작가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다. 이는 연재 중인 작가를 기준으로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이다.

기준 : 2017년 연재작 기준 / 중복 연재 포함

# 2017 웹툰 연재 작가 유형 비율



글/그림을 모두 작업하는 작가는 70.3%로 전체의 3분의 2를 조금 넘으며, 그림만 작업하는 작가는 16.7%, 글작가는 13%로 그 뒤를 이었다. 이런 작가 비율의 변화는 분업화 · 시스템화 되어가는 웹툰 제작환경을 보여준다.

# 제작 작품 수 별 웹툰 작가 수



1작품만 제작한 작가  
3,308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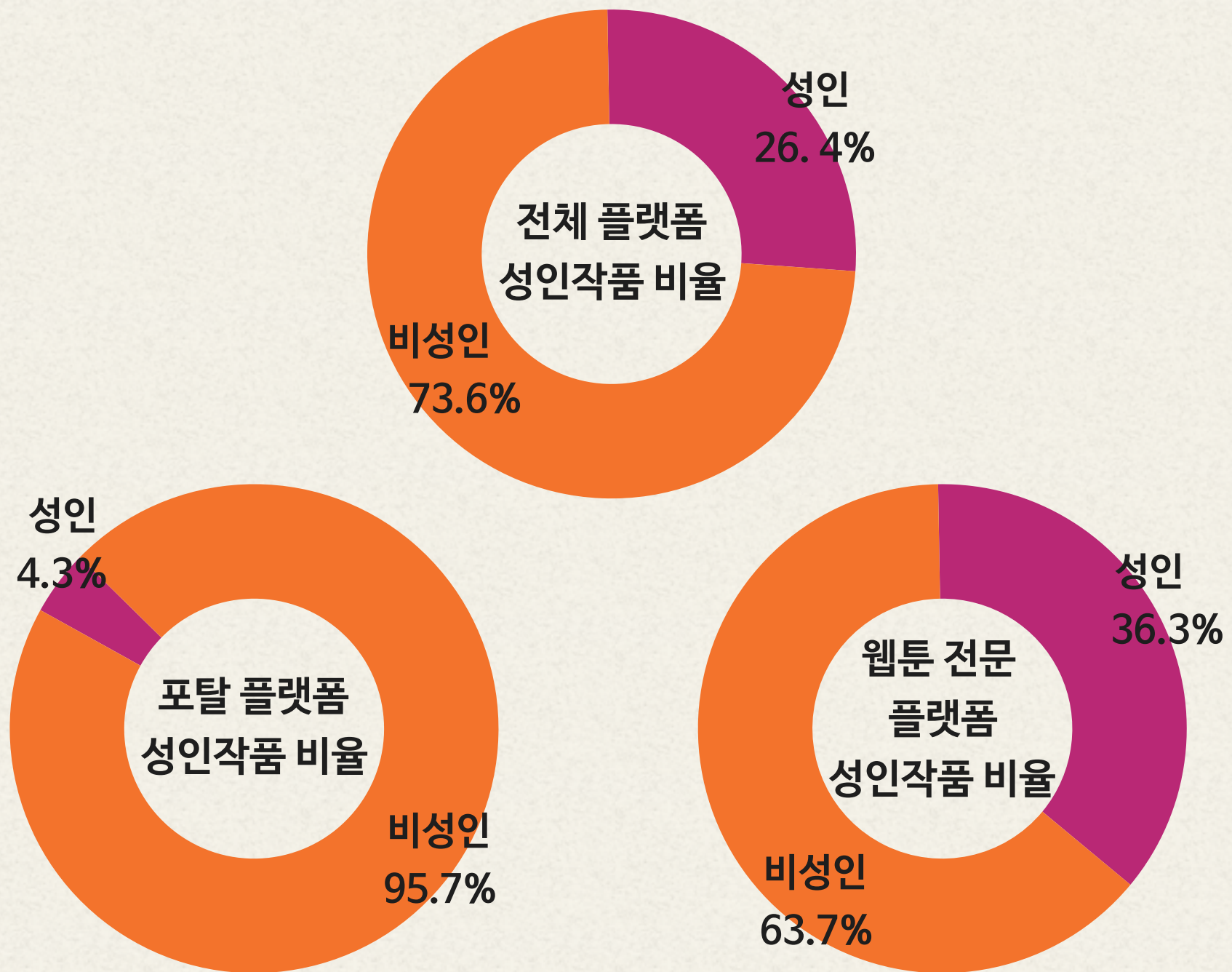
2작품 제작한 작가  
801명



3작품 이상 제작한 작가  
77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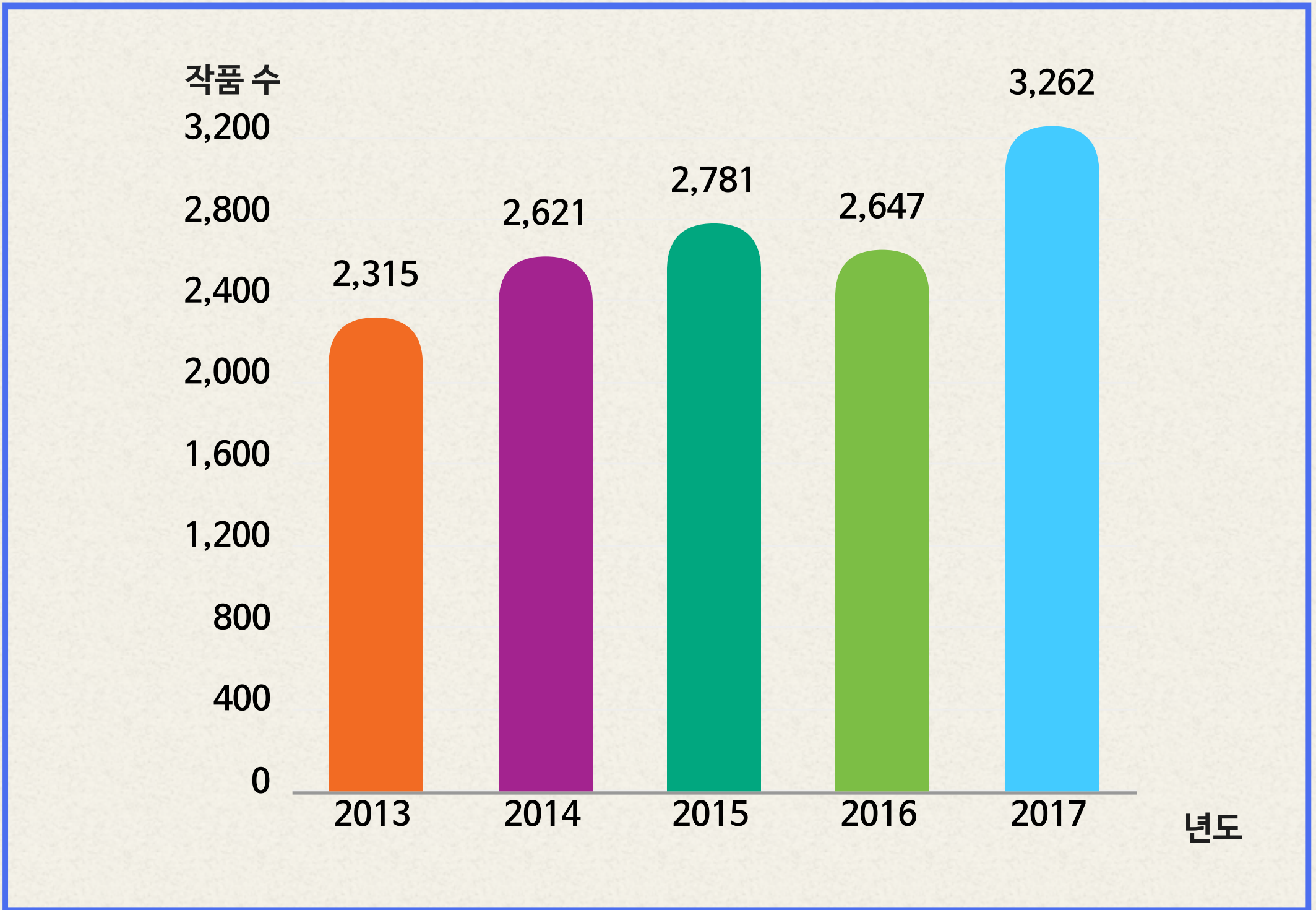
전체 웹툰 작가들 중 1작품만 제작한 작가는 3,308명, 2작품을 제작한 작가는 801명이며 3작품이상 제작한 작가는 770명으로 집계되었다.

# 웹툰 성인 작품 비율



네이버, 다음웹툰, 카카오페이지, 케이툰과 같은 포탈 플랫폼의 비성인작품 비율은 95.7%로 성인작품은 미미한 수준이다. 웹툰 전문 플랫폼의 경우 성인물 비율이 36.3%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.

# 연도별 단행본 발행 작품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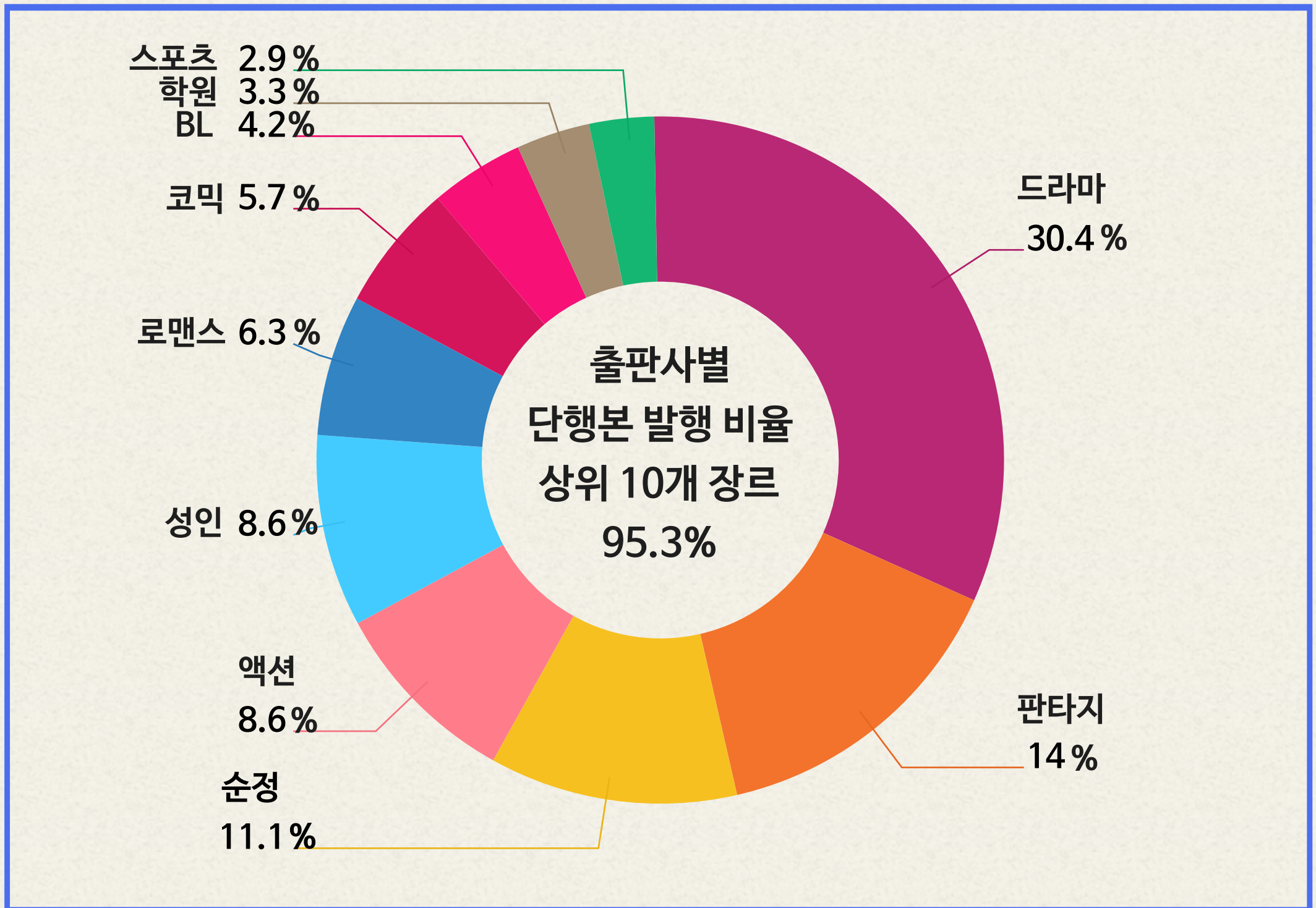


웹툰이 성장함에 따라 단행본 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.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이 단행본 시장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.

이는 웹툰플랫폼이 롱테일(Longtail)의 법칙 실현을 위해 단행본 디지털 판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것과 웹툰 단행본 판매의 증가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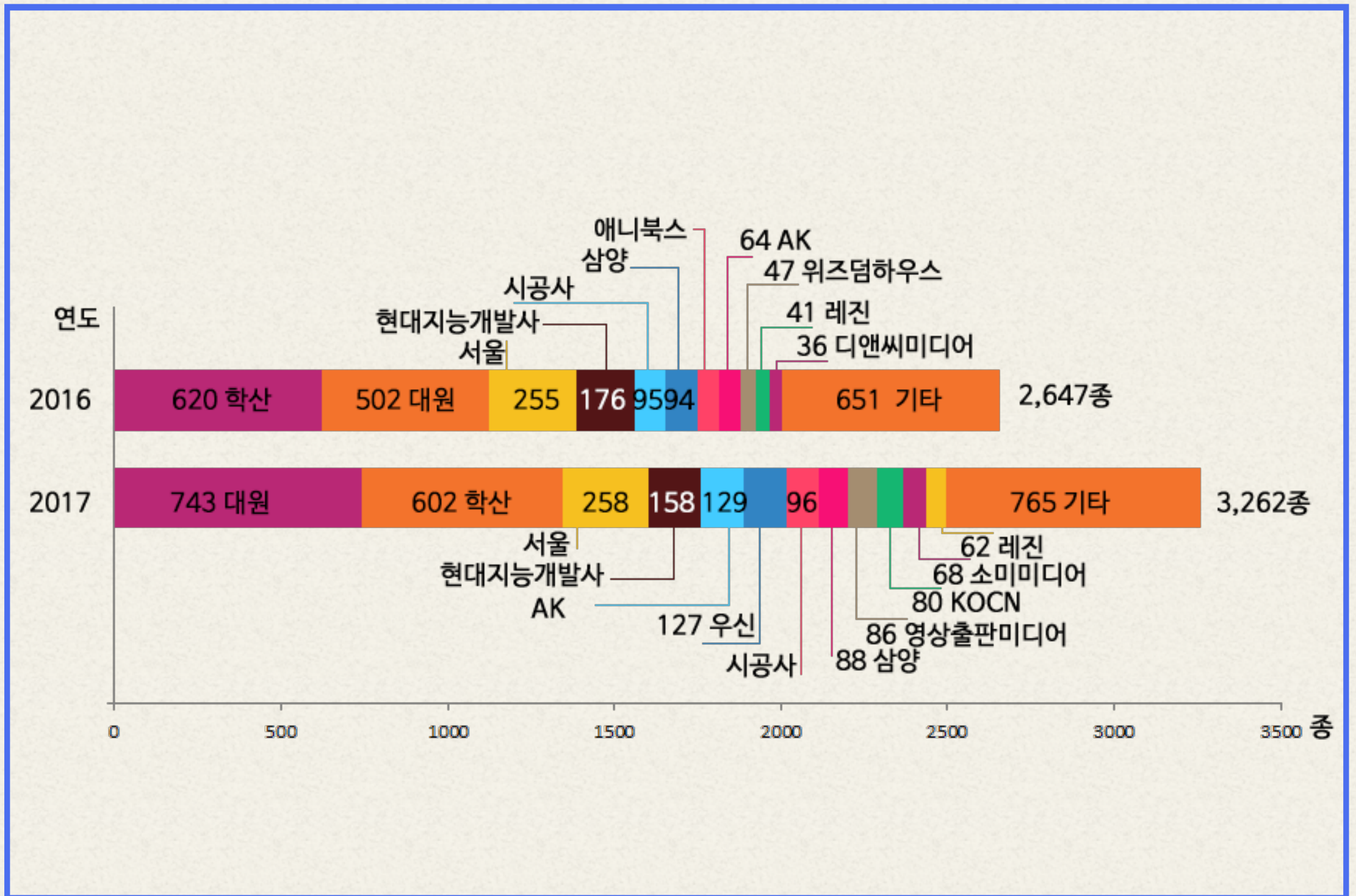
기준 : 2013년~ 2017년 12월 31일

# 단행본 장르별 발행 비율 (상위 10개 장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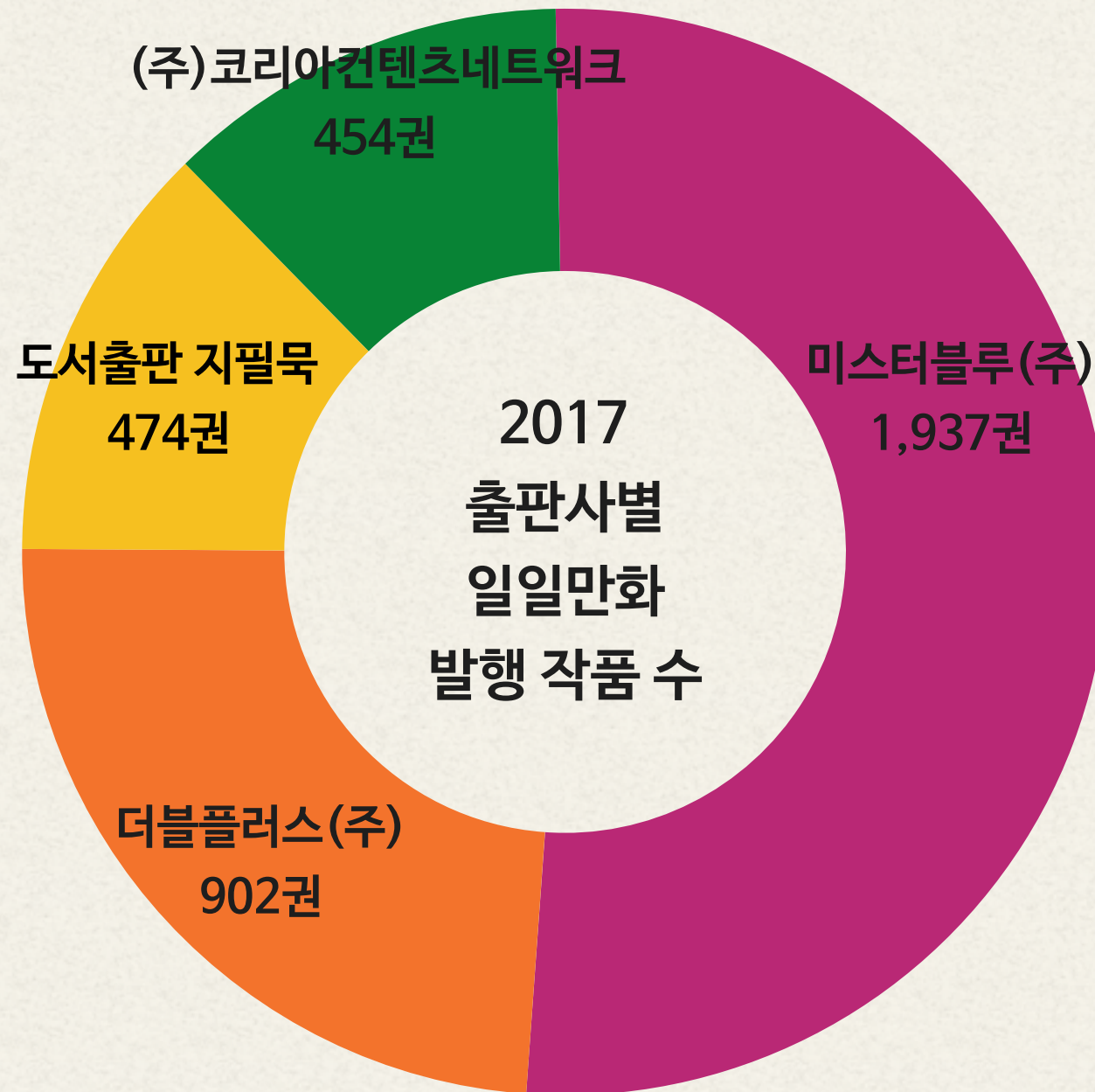
만화 단행본 상위 10개 장르의 비율 및 순위를 보면드라마가 30.4%로 가장 많으며, 판타지가 14%, 순정 11.1%, 액션8.6%, 성인 8.6%, 로맨스 6.3%, 코믹 5.7%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.

# 단행본 발행 종 수



한국 단행본 시장은 상위 3개 출판사인 대원, 학산, 서울문화사가 가장 많은 단행본을 발행하며 전체의 49%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. 레진은 웹툰 플랫폼 중 유일하게 단

# 2017 일일만화 출판사별 발행 작품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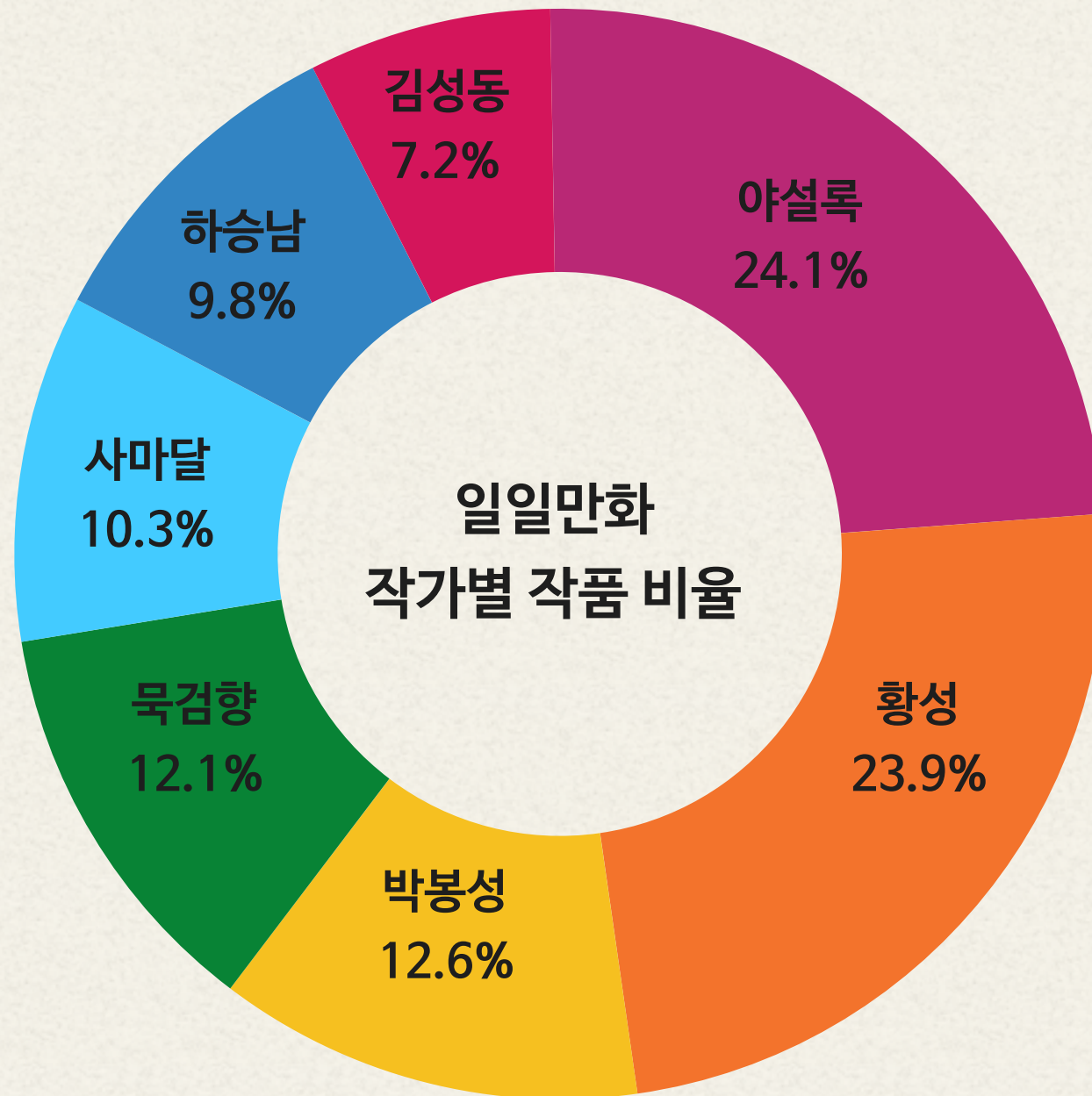


2017년 일일만화는 총 3,767권 제작되었다.

상기 4개 출판사가 전체 시장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미스터블루(주)가 전체 일일만화의 50% 이상을 제작하고 있다.

기준 : 2017년 발행 일일만화

# 2017 일일만화 작가별 작품 비율



1위 야설록 24.1%

2위 황성 23.9%

3위 박봉성 12.6%

4위 묵검향 12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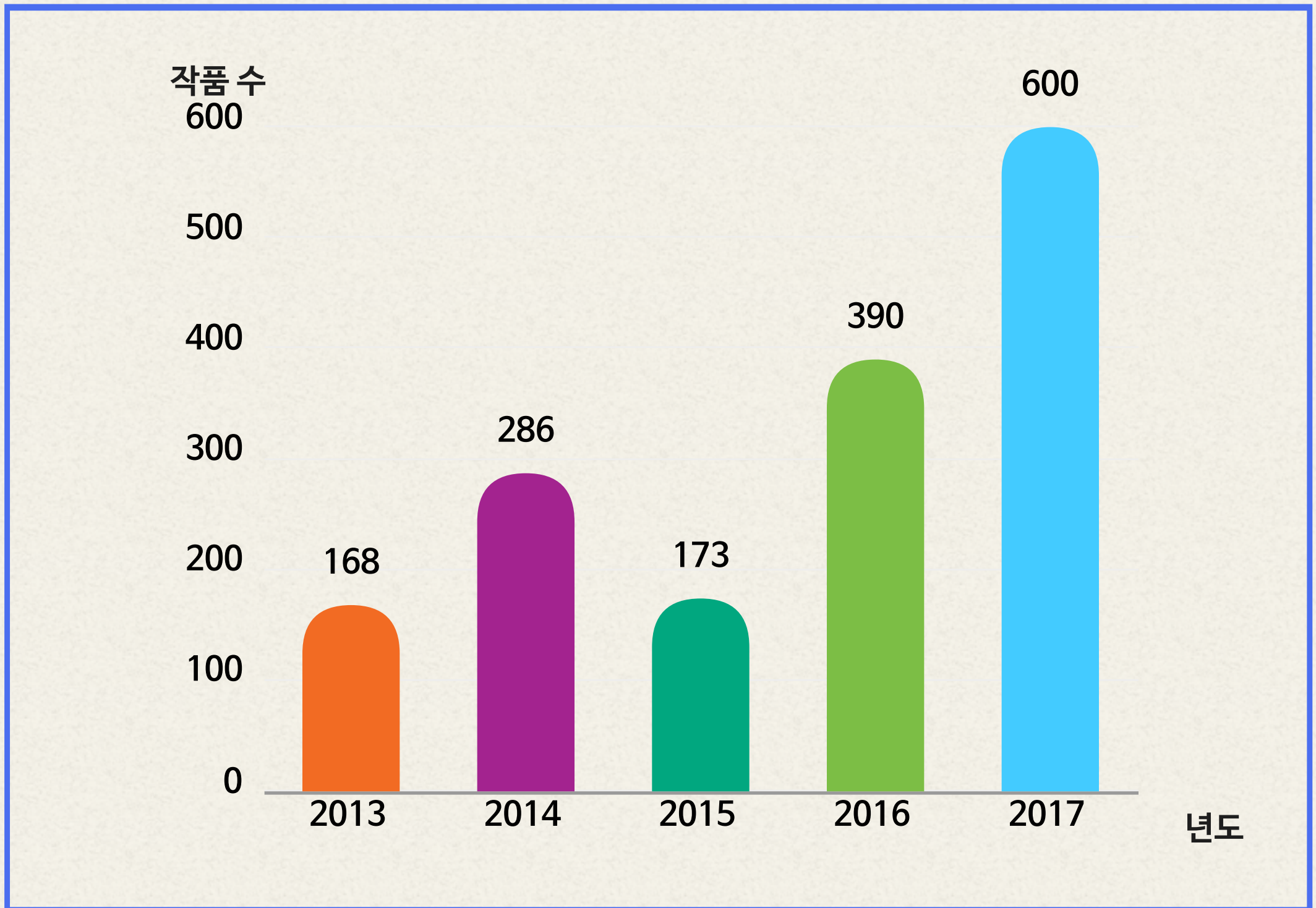
5위 사마달 10.3%

6위 하승남 9.8%

7위 김성동 7.2%

기준 : 2017년

# 연도별 학습만화 발행 종수



2013년부터 학습만화는 증감은 반복하며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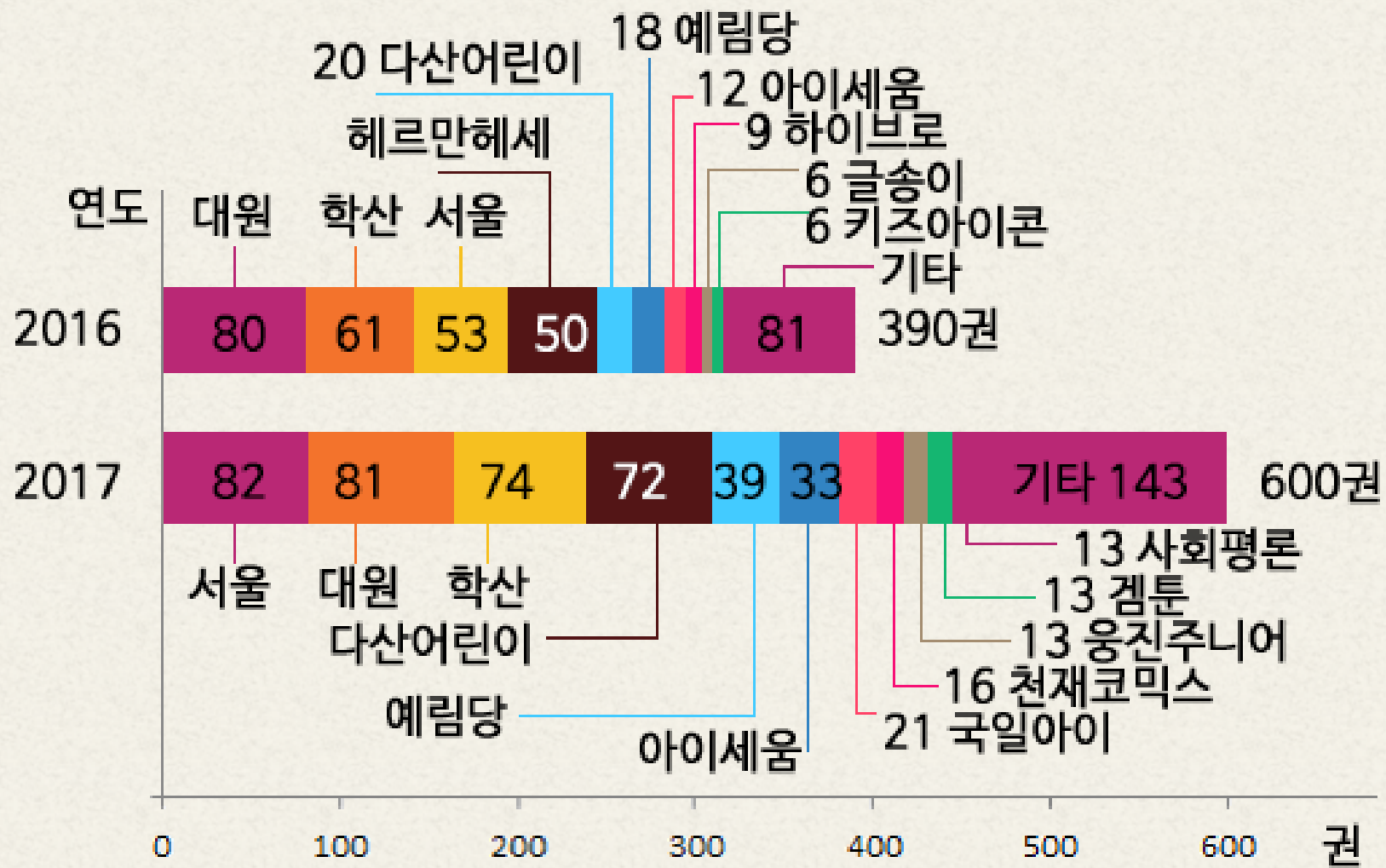
특히 2017년 학습만화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Job 시리즈, Who 시리즈, 도티&잠뜰 시리즈, 드래곤빌리지 시리즈와 같은 시리즈 물의 영향이다.

2014년: HOW SO 시리즈, 만화로 보는 한국역사 시리즈 36권

2016년: Go Go World 세계 역사문 화 여행 50권 등

기준 : 2013년~ 2017년

# 출판사별 학습만화 발행 작품 수



학습만화 시장은 단행본과 달리 기존 출판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. 대원, 학산, 서울문화사의 점유율은 전체의 39.5%로 전통적인 학습만화 출판사들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.